

# “중·고교 논술·수행평가 확대… 자유학년제 내후년 실시”

(45%~50% 이상)

## 서울시교육청 2019 수업혁신 방안

조희연 2기 '수업·평가 혁신' 추진 '고교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초등 고학년 창의·감성교육 도입

내년부터 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서술·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가 전체 평가의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초등 교실에서는 창의지성·협력적 인성·심미적 감성 함양을, 중·고교 교실에서는 융합적 창의지성을 모토로 하는 학교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희연 교육감 1기에 추진한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확산에 초점을 둔 '질문이 있는 교실' 정책을 보다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창의지성·감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혁신 종합 방안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교사 역량 지원을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학교급 간 단절 없는 수업과 평가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 ◆초등 3~6학년 '감성 교육과정' 도입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3~6학년 대상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창의지성 교육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갖춰야 할 기초·기본 학습과 사고력은 물론, 새로움을 표현하거나 만들어 내는 교육을 의미한다. 협력적 감성 교육은 예술감성·문학감성·자연감성·시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초등 교실의 수업에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과 '학생 참여 선택활동'이 전면 도입된다.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조사와 탐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

이다. 또 학생이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통합 프로젝트 ▲학년(급)별 창의적 교육 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등 학습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에 적응하도록 자문단과 현장지원단을 지원하고, '꿈실 포럼과 워크숍', '꿈실 전문학습공동체' 등이 운영된다. 또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을 지원하는 5종의 장학자료를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수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학교 이외에 3~6학년 1500학급 내외를 공모·선정해 150만 원 이내 운영

비를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학년 단위, 팀(주제) 단위, 개별(학급) 단위로 가능하고 지원되는 운영비는 자료구입비, 체험 학습비,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나눔·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 추진

중·고등학교는 나눔·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교실 수업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확대 운영되고 2020년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해 협력적 인성과 감성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이 자신의 희망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통해 미래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업 방식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함께 탐구하고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이 전 교과에서 운영되고, 서술형 메이커 교육을 확대해 창의성·협력·공유 능력을 함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연계를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9년도 중·고교에서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합계의 비율이 현행 4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에서 학기당 1과목 이상 수행평가를 서술형 문항만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 교사들이 상시적으로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학내 수업나눔카페를 2019년 99개 중·고교에 구축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방안을 내년 3월 신학년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2월 중 모든 초중고에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평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1월 말 인민고 닷새살이 직후 학교현장은 단일방정식이 아닌 복합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수업혁신이 그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 공식임을 깨달았다"며 "이번에 발표한 혁신 방안을 계기로 배움이 설레는 학생, 가르침이 즐거운 교사,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올해 구직자 12번 도전해 1.2번 최종합격

### 인크루트, 구직자 1337명 설문

지원 횟수 줄고 최종합격을 올라

올해 구직자들의 최종합격률이 10% 수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공동으로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지원 횟수는 평균 12회였고, 최종 전형 합격 횟수는 1.2회였다.

구직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차례 입사지원서를 냈고, 이 가운데 한 번 최종 관문을 통과해 최종합격률은 10%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최종합격률 8%(평균 22곳 지원, 1.7곳 합격) 보다는 2%포인트 높다. 올해는 지원 횟수는 감소했지만, 최종합격률은 상승했다.

10회 미만 입사지원했다는 응답자가 72.2%로 가장 많았지만, ▲ 11~20회(13.4%) ▲ 21~30회(6.8%) ▲ 41~50회(2.8%) ▲ 51~99회(2.1%) ▲ 31~40회(1.5%) 등 100회 가까이 입사원서를 낸 구직자도 있었다.

최종 합격 횟수는 전부 탈락했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 1회(31.2%) ▲ 2회(13.6%) ▲ 3회(6.6%) ▲ 5회, 6회 이상(각 2.4%) 등이었다.

불합격 이유에 대해 '학점, 어학 점수 등 스펙이 좋지 않아서'(23.5%), '면접을 잘 못봐서'(21.1%)라고 생각하는 구직자가 많았다. 이외에도 '자기소개서를 못 써서'(12.3%), '인적성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12.2%), '인턴, 대외활동 등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12.0%)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 138개 대학 입학상담 '한 곳에서'

### 대교협

15일까지 코엑스서 정시박람회

전국 138개 대학이 한 자리에 모여 2019학년도 정시모집 상담에 나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3일~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19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 참가 대학 수는 지난해(129개)보다 9개 대학이 늘어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규모다.

각 대학들은 상담부스를 마련해 입학 관련 교수, 직원,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지난해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또 '일대일 대입상담관'에서는 진학 상



지난해 12월 열린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대학 상담부스에서 입학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이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교사단 상담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서비스(☎1600-161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람회에서는 입학 상담 외에도 대학

의 입학정보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 등 다양한 특별관에서 대입 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각 대학의 학과·전형 정보나 대학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 대학의 특성화정보 등 대학별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사이트의 주요 서비스와 활용법을 소개하는 대입정보포털 홍보관이 운영된다.

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홍보관'과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등에 대한 맞춤 상담받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홍보관'도 있다.

박람회는 이 기간 중 매일 10시~17시까지 운영되고, 16시 30분까지 입장 가능하다. 입장료는 1000원이다. /한용수 기자

## 하반기 취업 스펙은 '전공·인턴 경험'

### 사람인, 기업 341개사 설문

극심한 구직난을 뚫고 올해 하반기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의 스펙은 어느 수준일까.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스펙은 전공으로 나타났다.

12일 사람이인 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341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 선호, 외국어 실력, 인턴 경험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신입사원 중 절반 이상인 64.8%는 최종 학력이 대졸이었고, 그 중 '지방 사립대'(31%) 출신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소재 대학'(24.3%), '서울 소재 대학'(19.8%), '지방 거점 국립대'(17.1%), 'SKY 등 명문대학'(4.2%), '해

외 대학'(3.7%) 순이었다.

기업들은 평균 3.2점의 학점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했고, 최종 합격자 평균 학점은 이보다 다소 높은 3.4점으로 집계됐다.

토의 성적을 보유한 신입사원은 절반 이상(53.2%)이었고, 10명 중 3명은 토익스피킹 성적이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 등 스펙을 배제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외국어능력시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기업들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 1순위로 '전공'(28.3%)을 꼽았다. 이어 '인턴 경험'(13.3%), '인턴 외 아르바이트 경험'(12.4%), '보유 자격증'(9.9%), '대외활동 경험'(9.4%), '외국어 회화 능력'(4.7%), '학력'(3.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성과 스펙의 평가 비중에 대해서는 57대 43으로 인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 중앙대 로스쿨

2019 검사 임용률 전국 2위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2019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합격률 10%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정원(50명) 대비 8%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올해 10%의 합격률을 기록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대학별 정원대비 검사 임용률 2위를 기록했다.

중앙대 이순욱 교수(검찰준비반 지도교수)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효율이 높다"며 "검찰실무기록 특강, 모의면접, 검사 멘토링 등 앞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가 소식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

건국대학교는 통일인문학연구원(단장 철학과 김성민 교수)과 민간영역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102호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오는 13~14일 양일간 '2018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관계를 살피고, 한반도 주변 국가와 국제적 차원의 평화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정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 최경희 한성대 교수

국제외류학회서 우수논문상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패션크리에이티브디자인 트랙 최경희 교수(사진)가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2018 국제외류학회(ITA A) 연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에코-테크 컨셉에 기반을 둔 리디자인 패션 프로젝트: 문제해결방식(PBL)을 활용한 연구'다.

최 교수는 코벌대와 켄트주립대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2010년 3월 한성대 교수로 부임했다. /한용수 기자

